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박차

안호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협의회 가져… 내년 필요분 107억원 요청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측 김용만 보좌관과 오상윤 비서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무주군 김흥수 기획조정실장과 무주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국도건설과 △적상~안성(국도 19호선) 확포장,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국가예산 6조 6,700여 억 원 중 2019년도 필요 분 107억 원을 요청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과 △무주 생태모험공원,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군유림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 △무풍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읍내 2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722억 원(국비 398억) 중 2019년도 필요 국비 54억여 원 확보를 건의했다.

또 △하유~중유 간(군도 3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과 △안성 공정지구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55억 원 중 아직 확보되지 않은 30억 원을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청 김흥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건의를 드린 이 사업들이 무주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라며 "국가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 보좌진 측에서는 "논의된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겠다"라며 "국가 예산사업들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권상현 선수, 평창 패럴림픽 도전

무주출신으로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출전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이 지난 9일 개막한 가운데 무주출신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 권상현 선수(21,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 사진)가 생애 첫 올림픽에 도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첫 경기를 치른 권 선수는 13일과 16일에도 동일 종목에 출전하며 12, 14, 17, 18일에는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도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1997년 무주군 안성면에서 태어난 권상현 선수는 안성고등학교 시절 꿈나무로 발탁이 돼 훈련을 받아왔으며, 2016~17년 열린 장애인 동계체전에서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두 종목에서 모두 2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여 왔다.

권상현 선수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자신의 최고기록 경신과 함께 메달획득에 도전한다.

무주군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도 우리 군 출신 선수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라며 "그 힘든 훈련을 다 견디고 국가대표가 돼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선 권상현 선수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평창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를 방문해 권 선수의 경기를 응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후가 아름다운 진안군 효사랑 정책'

진안군 노인복지정책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사회복지 우수상

진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후원한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올해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209개 사업이 신청됐다.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판매, 사회복지서비스 등 7개 부문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부문별 해당 부처 공무원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 3개, 최우수 4개, 우수 20개 총 27개 시책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노후가 아름다운 진안군 효사랑 정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골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70세 이상 무료 탑승제를 실시하고 행복버스와 100원 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텃밭 재배 농산물을 진안시장에 파는 고향할머니 장터는 노인들의 소득증대 및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항로 군수는 "민선 6기 들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진안을 건설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치유자원개발과정 교육 추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자원개발과정 교육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10회 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치유자원은 농업 ·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 사회적 · 인지적 ·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치유자원개발과정은 장수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50명의 농업인, 체험관련 종사자가 참여하여 주 2회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치유농업의 이해와 전제조건, 치유자원접목사례, 산림치유 원예, 음식, 심리, 미술치유에 특성과 프로그램 설계 등을 사례중심의 강의와 실습위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 장수군의 자연환경 자체가 치유자원이며 각 농장에 맞는 치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고 전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장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창업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자원을 치유자원으로 연계하여 환경, 원예, 음식 등 치유상품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 도시의 상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임원 워크숍

장수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들의 자율적 모임인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지난 9일 농업연수원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율적 회의운영 방법, 연구회별 연구과제수행, 공동교육 · 생산 · 구매 · 판매 · 유통, 영농현장문제 해결, 선진지 견학과 품질관리 위한 연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설명회'와 '농업정책자금의 이해와 활용' 설명과 함께 '농업인의 건강과 수면', '시대 변화에 따른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전문 강사의 강좌가 이어졌다.

한편 2018년도 장수군 품목별농업인 연구회는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36개의 연구회가 등록하여 1,387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군에서는 연구회별 자율적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강사와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장수농산물의 경쟁력과 농업인의 농업기술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장수군 농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바라며, 회원 상호간 기술공유로 우리군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품목별연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전시성, 낭비성 예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과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희숙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안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72건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나 읍면 이장회의 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063-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성수면 노인사회활동 발대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지난 9일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과 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업의 취지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참여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 복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거리환경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불법투기행위예찰 활동 등을 통해 깨끗한 성수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